

조몬시대의 도리하마 패총과 레이난 지역

개요

조몬 시대(약 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는 수렵채집의 생활양식과 함께 토기의 발전과 정주생활의 증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후쿠이현 남서부 와카사만을 따라 위치한 레이난 지역에서는 당시 유적이 60 곳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도리하마 패총으로 알려지게 된 도리하마에 있는 선사시대 취락이 발견되었으며, 쓰레기장 유적발굴조사에서는 주거 및 저장용 구멍, 조몬시대 전반에 만들어진 보존상태가 좋은 조몬토기, 석기, 목제품 등 유물과 유기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인근의 숲, 호수, 강, 바다에서 나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도리하마 마을 주민들의 생활양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

도리하마 패총의 발견과 유래

패총은 하스 강과 다카세 강의 합류점인 와카사초 도리하마의 지하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은 차가운 지하수와 조개껍질에서 나오는 칼슘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 때문에 산화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 보존상태가 좋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물로부터 판단해 보면 마을 주민들은 계절에 따라 수확 및 가공한 조개류와 식용식물, 기타 음식물을 호수 둔치에 폐기했는데, 이것들이 쌓여 점차 패총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식물과 동물 출토품

패총에서 나온 동식물 출토품은 사람들이 비교적 장기간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조몬 시대 이전에 주류였던 이동형 수렵채집 생활과는 대조적입니다. 동식물이 풍부한 근처 호수와 바다, 숲은 일년 내내 식량 입수가 보장되었습니다. 패총에서는 멧돼지, 사슴, 조개류, 나무열매, 과일 등 75종 이상의 식용 식물과 동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예품

도리하마 패총 유적에서는 통나무배, 활, 도끼자루, 목제용기 등의 공예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옷칠이 되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른 발견물로는 꼬거나 땅은 밧줄과 식물섬유로 된 바구니의 파편, 동물의 뼈로 된 바늘, 섬유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망치 등이 있었습니다. 발굴조사에서는 나무와 돌, 상아, 사슴뿔, 조개, 점토 등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빗과 머리장식, 귀걸이, 팔찌, 펜던트 등의 다양한 개인용 장식품도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토기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리하마 패총의 지층에서 발굴된 토기는 기원전 11700 년경부터 기원전 3800 년경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기원전 4300 년경부터 기원전 3800 년경에 만들어진 토기는 형상과 디자인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도리하마에서 발견된 토기의 대부분은 그을음이나 탄 음식의 잔해로 덮여 있었는데, 분석 결과 이 토기는 어패류나 식물 조리에 사용되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전시품

도리하마 패총의 대량 토기 컬렉션은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어 디자인과 형상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시품의 대부분은 얇고 입구가 넓으며, 비교적 몸통이 가늘고 깊은 용기입니다. 점토의 장식 문양은 예리한 도구나 손톱으로 새겨졌습니다.

통나무배는 1981 년부터 1982 년에 걸쳐 발굴된 2 척 중 처음에 발굴된 것입니다. 선체는 일본삼나무 거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불로 구운 후 석기로 조각하여 속을 도려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시되어 있는 밧줄이나 천 조각 중에서는 2 가닥의 줄로 꼬아놓은 밧줄은 기원전 약 9500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사슴뿔로 만들어진 굴착도와 돌도끼, 나무도끼자루, 고기잡이에 사용된 뼈 창끝 등은 조몬 사람들이 사용하던 도구들의 일례입니다. 도리하마 패총의 다양한 유기유물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동물과 물고기의 뼈, 나무열매, 이곳 이름의 유래가 된 조개껍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